

〈제 664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신년사

-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활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되는 한해 되길 -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올해도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요인은 물론 미·중 갈등 지속,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당장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기업들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광주는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로 상징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건설과 함께 신차판매가 시장의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기반이 착실히 다져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올해, 광주경총은 이러한 국내환경과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중대재해 문제가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기업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마련되도록 전국 경총과 연대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 경제현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상생형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노동계와 적극 협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기업CEO 및 인사 관리자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노동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지원하고, 회원 배가 활동을 통해 경영계의 입장이 널리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중장년의 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인생 2모작 설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개최하고 있는‘금요조찬포럼’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주제와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광주경총은 새해, 우리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 1.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봉 길

광주신세계

◆ 지역 특산물 판매전 개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1층 이벤트홀에서 지역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특산물 판매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광주·전남 내고장 특산물전’은 여수 특산물인 천사돌산갓김치, 보성 녹차, 영광 굴비, 완도 건어물, 순천 전통장류, 곡성 사과·딸기, 구례 김부각·표고버섯, 장성 꽃감·꿀 등

지역 13개 업체에서 재배하거나 만든 100여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업체 종사자들의 마스크, 위생장갑, 위생모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미입점된 지역 제품 판로확대를 통해 소득 증대에 직접적 도움을 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 사랑의 열매 기부금 전달 행사 참여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정섭)은 사회적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전달행사를 가졌다.

이날 광주신보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으며,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 보훈청 등 4회에 걸쳐 약 800만원을 기부했다.

광주은행

◆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7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오정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7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된 ‘오정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 복지시설로 29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받고 있다.

이날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오정지역아동센터’의 노후된 냉·난방시설과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서 준비해간 간식을 아동들과 함께 먹으며, 꿈을 키워 나가도록 격려했다.

대창운수

◆ 나눔캠페인 성금 5천만원 전달



대창운수(대표이사 고흥석)는 대창석유와 함께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2022 나눔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대창운수 · 대창석유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성금 5,000만원은 캠페인 기간 광주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대창운수 · 대창석유는 지난 2010년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형석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청소년 교복구입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우영인)는 새내기 중고생 교복구입비 1,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지원금은 광주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40명의 교복구입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우영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은 "우리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안내 >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적십자회비에 참여해 주세요.
집중모금기간 : 2021.12.1 ~ 2022.1.31 / ARS : 060-703-1100

럭키산업

◆ 광주 서구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럭키산업(회장 박흥석)은 광주 서구장학재단(이사장 윤풍식)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비용으로 지정 기탁됐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를 통해 전달됐다.

박흥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보해양조

◆ 요리용 맛술 기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광주광역푸드뱅크에 2천600만원 상당의 요리용 맛술 1,200 박스를 기부했다.

기부된 맛술은 광주지역 내 17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개인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 맛술을 기부하게 됐다”며 “보해 역시 매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정공

◆ 지스트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우성정공(회장 박화석)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에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박화석 회장은 현재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GTMBA(기술경영아카데미) 과정 1기를 수료했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매년 지스트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이번에 기탁한 2,000만원을

포함하여 지스트를 위한 누적 기부금액이 총 9,100만원에 달한다.

박화석 회장은 "유망한 학생들과 전문적인 교수들이 많은 지스트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들을 많이 거둬들여 지스트가 최고의 과학기술 요충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스트 내에 소통과 교감이 잘 이루어져 학교가 더욱 성장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양에너지

◆ 사랑의 쌀 나눔 행사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해 29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산하의 소화성가정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해양에너지의 기부 활동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직원들의 체중 감량(kg)만큼 연말에 쌀을 기부하는 해양에너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다.

해양에너지 오광호 전무는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나눔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회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입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사(기관)명 및 소속	성명	비고
가현푸드빌(주)	박국범	일반회원
중앙씨엔씨건설	김성	일반회원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44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월호 스님(행불선원 선원장)

주제: 해탈에 이르는 명상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2월 31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월호 스님을 초청 <해탈에 이르는 명상>이란 주제로 제1544회 2021년도 마지막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1. 아바타 명상—즉석해탈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이다. 번뇌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해탈의 대상이다. 아바타라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아바타 명상은 허공에서 드론으로 관찰하듯,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탐.진.치는 아바타의 몫이고 나는 다만 3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뿐이다. 나를 아바타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보는 것이 명상이다.

2. 바라밀 명상—본래 해탈

아바타에게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 그러므로 쓰는 대로 받음, 즉 인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번뇌와 업장이 다름 아닌 살.도.음.망에서 비롯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업장에서 해탈하면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며, 본래의 자신을 찾게 된다. 관찰자인 ‘본 마음 참 나’ 는 크고 충만하다. 이것이 본래해탈이며,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이다. 마하는 몸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텅빈 충만함이다.

3. 행불 명상—모두해탈

나와 남은 둘이 아니고 , 웃다보면 웃을 일이 생기며, 베풀다 보면 충만해짐을 체험하는 연습이다. 즉석해탈과 본래해탈, 이 두가지 방법을 주변에 적극 권장하여 모두해탈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실현이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II. 광주경충 소식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성과공유회〉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기업형 9기연장 및 10기 드림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드림청년 활동보고 및 수기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현지 Live ‘스페인 바르셀로나’ 랜선 워킹투어를 통해 드림청년들이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일경험을 마무리하며 수고한 자신에게 위로와 축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장년센터 최고등급 S등급 성과〉

본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 중장년 구직자 및 중소기업에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1년도 전국운영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하에 만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제2의 인생 준비를 돕는 생애경력설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년에 생애경력설계 1,146명, 재도약 프로그램 87명, 전직스쿨 프로그램 99명을 수료시키며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평가기간내 프로그램 수료자 취업률은 36.68%를 기록했다.

또한 40대가 20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총 10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이 중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와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서비스에서도 높은 성과를 이뤘다.

사무국 일지(12.27 ~ 12.31)

12.28 (화)	●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12.31 (금)	● 제1544회 금요조찬포럼
12.29 (수)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성과공유회(~30)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상세 내용

1.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1.27.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4.1.27. 시행)

[신설]

중대산업재해 정의(제2조 제2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시행령)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 규정(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 만성질환 제외)

경영책임자 정의(제2조 제9호)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주(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위임*)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시행령 위임**)
- * ①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②전담조직 설치(500인 이상), ③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④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⑤종사자 의견청취, ⑥도급·용역·위탁 시 기준 절차 마련 등
- ** ①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②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원청 의무(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의무를 부여(단,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법인 처벌(제7조)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상해) 10억원 이하 벌금

III. 노사 및 법제동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재범)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50% 가중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제15조)

-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처벌 주체	· 법을 위반한 행위자	· 의무위반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 전체	·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도급인 책임	·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 · 도급인 사업장 밖(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 배·관리하는 21개 장소)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장비, 장소 등
개인 처벌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해) 처벌규정 없음 · (재범)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50% 가중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징역 과 벌금 병과 가능) · (재범)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50% 가중 ·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처벌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 (상해) 처벌규정 없음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상해) 10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책임	· 없음	· 피해자 손해액 5배 이내 배상책임

검직하는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최소업무 수행시간 기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제4조, 시행령 제4조제
6호 (2022.1.27. 시행)

[신설]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검직하는 경우, 각각의 안
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으로 규정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 광업(석회업·금속 광업, 쇄석·기타광물채굴채취업),
· 제조업(섬유판·철근콘크리트제품·석재및석공품제조업 등), ·건설업(건축건설·기타건설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소형화물운수업, 퀵서비스업, 향만운송부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20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
상~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0시간을 추가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검직시킬 수 없음)

Ⅲ. 노사 및 법제동향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등 신설 산안법 제128조의2 (2022.8.18. 시행)

[기존]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2018)로 권고

[변경]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하위법령(안) 제정 논의 중임.

지도계약 체결주체 변경, 건설공사도급인의 적절한 조치의무 신설

산안법 제73조 (2022.8.18. 시행)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변경]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전문기관과 건설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
 - 지도기관과의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의무 신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요양신청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2022.1.1. 시행)

[기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산재요양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의견 제출

[변경]

- 사업주 의견제출 기한(10일 이내) 삭제
 - 공단이 사업주에게 산재요양신청 통지 후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 확인

원청·사용사업주 개별실적요율 적용 강화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2022.1.1. 시행)

[기존] 수급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급여는 원청·사용사업주 개별실적요율 산정범위 제외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변경]

- 도급·사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위반으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산재와 파견근로자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액을 원청·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 산정범위에 포함
 - (수급인 산재)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0조, 제62조~제65조 위반으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재에 지급된 보험급여 지급액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
 - ※ 다만,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보험급여 지급액의 50%만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
 - (파견근로자 산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통합(직영+파견+하청 근로자) 사고사망자 수’ 규모에 따라 할인을 축소
 -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 3명 이상이면 할인을 40~50% 제한, 6명 이상 시 100% 할인 제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신설

산재보험법 제75조의2, 시행령 제71조의2
(2022.1.1. 시행)

[신설]

-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요양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요구 가능
 - (제출대상)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의 예상되는 자,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
- 사업주는 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 원직장복귀 가능여부 및 복귀 후 수정예정 직무, 사업주 지원 요청 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별도 과태료 처분 없음)
 - (변경제출 요구)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업주에게 변경제출 요구 가능
-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필요한 지원 가능

산재사망으로 추정 시, 장례 전 장례비 선지급 가능 조항 마련

산재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66조의2
(2022.1.1. 시행)

[신설]

-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선지급 가능
 - 장례비 선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한정

Ⅲ. 노사 및 법제동향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로 인정·보상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등 (2022.12.27. 예정)

[신설]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장해·간병급여 및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한정
 - 건강손상자녀의 장애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실시하고 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2, 시행령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시행규칙 제74조의2 등 (2022.1.1. 시행)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연구실 안전환경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위과정에 있는 자
 - 또는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자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2022.7.1 시행)

[기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 적용

[변경]

- 유통배송기사(마트배송기사), 택배 자·간선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운송 화물차

2. 개별적 근로관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최저임금 고시(2022.1.1~12.31)

2021년 : 시급 8,720원



2022년 : 시급 9,16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일 8시간) 기준의 월환산액 1,914,440원

최저임금 지원금 변경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22.1.1~12.31)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원 지급]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변경]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 간 지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부칙)

*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 비율 변경

[기존]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 초과분

[변경]

-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209시간 기준 19만 1,444원)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209시간 기준 3만 8,288원) 초과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당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구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1년	15%	3%
2022년	10%	2%
2023년	5%	1%
2024년	0%	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55조(2022.1.1. 시행)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020.1.1. 시행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2021.1.1. 시행

[변경]

- 상시 5인 이상 ~ 29인 이하 사업장도 시행,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부여

[참고] 공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 | |
|-----------------------|---------------------|
|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 1월 1일 |
| • 설 연휴 |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 • 5월 5일 (어린이날) | • 6월 6일 (현충일) |
| • 추석 연휴 |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 대체공휴일('21.8.개정) | |

※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으로 공휴일 운영이 통일되나, 공휴일 등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공휴일법 제4조) 함.

공휴일법 시행과 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법(2022.1.1.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1.8.4. 시행)

[기존] ① 설 연휴·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非公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非公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변경]

-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으로 공휴일 운영 통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그 외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 (2022년 실제로 추가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한글날)

3.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56조의5, 제56조의6(2022.7.1 시행)

[기존] 근로자 1.6%(절반씩 부담) / 예술인·노무제공자 1.4%(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변경]

- 근로자 1.8%(노사 절반씩 부담) / 예술인·노무제공자 1.6%(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2022.1.1 시행)

[기존]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12개 직종 적용

[변경]

- 퀵서비스, 대리운전 2개 직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용보험 적용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2022.5.19 시행)

[신설]

-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022.1.1 시행)

[기존] 직장가입자 : 6.86%,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변경]

- 직장가입자 : 6.99%,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2.1.1 시행)

[기존] 건강보험료액의 11.52%

[변경]

- 건강보험료액의 12.27%

Ⅲ. 노사 및 법제동향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인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2022.1.1 시행)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대략 퇴직급여충당금)의 90% 사외 적립

[변경]

- 기준책임준비금 전액(100%) 사외 적립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3항,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022.4.14. 시행)

[신설]

- 대상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내용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 적립
- 제재 :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의무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의2, 제48조제2항제1의2 및 제1의3 (2022.4.14 시행)

[신설]

- 대상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내용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
- 제재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방안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장의2 (2022.4.14 시행)

[신설]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 내용 : 근로복지공단이 확정기여형(DC)하에서 개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 제도 가입은 선택이며, 동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입